

이숙자 남원시의원, 도통동 쓰레기 장소 문제 해소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시민 생활민원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 부서와 협업하며, 도통동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 문제를 해소했다.

이숙자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랜 기간 주민 불편이 이어졌던 도통동 상가 및 주택가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 사례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이뤄낸 모범적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숙자 의원

해당 지역은 수년간 쓰레기 무단투기가 반복되며 악취와 미관 훼손이 심각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으로, 이숙자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악취로 생활이 어렵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남원시 환경과·도시과·도통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생활 폐기물 배출 장소 개선 △종량제 봉투 쓰레기통 설치 △의자 설치 등 주민 휴식공간 조성 △화단 정비 및 꽃나무 식재 등 쾌적한 환경정비와 함께 휴식공간을 결합한 개선방안을 마련, 불법투기 상습지로 지적받던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뒤 상가 및 주택가 일대가 깨끗한 마을 소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이숙자 의원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협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의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창수 조합장, 김제 용지면 면민의 장 애향장 선정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14일 제35회 용지면민의 날을 맞아 용지면민의 장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애향장 수상자로 김창수(전주김제원주축협장주축산업협동조합장)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상자는 전주김제원주축협조합장으로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실질적 이익 증진에 헌신했으며, 지역 환경 개선·이웃돕기·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이끈 공로가 인정됐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김창수 조합장은 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신 진정한 애향인"이라며 "용지면민 모두에게 자긍심과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면민의 장 시상식은 오는 25일 제35회 용지면민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김창수 조합장



현대자동차 신무주대리점, 무주군에 쌀 지정 기탁

현대자동차 신무주대리점은 지난 13일 무주군에 쌀 70포대(1포대 10kg)를 지정 기탁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쌀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 30포대, 어려운 이웃에 40포대가 전달될 예정이다.

박동욱 대표는 "지난 9월 대리점 개소 축하 선물로 받은 쌀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어 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현대자동차 신무주대리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신무주대리점은 지난 9월 29일 무주를 단전로에 문을 열었으며 신차 판매 및 상담 차량유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20회 순창장류축제, 포토존 곳곳에 설치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앞두고 축제의 추억을 선사할 다양한 포토존이 주요 장소에 설치됐다.

경관용 국화 3만여 본이 테마공원, 팔이공원, 독대마당, 토굴에 배치되어 가을 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팔이공원에는 1만여 본의 오색 화분국과 조형국, 대국이 어우러진 국화 정원이 조성되었으며, 이곳에는 하트 모양과 전통 장복대를 형상화한 포토존이 마련해 특별한 추억을 사진에 담을 수 있게 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메디컬푸드 산업 가능성·미래 전략 집중 논의

바이오진흥원, 제13회 바이오지식포럼 '문샷' 성료

(제)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14일, 농생명·식품·바이오 분야 유관기관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바이오지식포럼 '문샷(Moonsho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 개선 전략으로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독립적 관리 체계 마련 △제조, 품질, 광고, 처방 판매 전 과정의 일관 규제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회귀·만성

질환형 메디컬푸드 표준화 공동연구 추진 등이 제시됐다. 또한 K-Medical Food 브랜드화를 통해 한국형 식단·발효형 제품을 글로벌 표준으로 제시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포럼은 메디컬푸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담론의 장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바이오진흥원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R&D 확대,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 연계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875억 원 규모의 메디컬푸드·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대병원, JB외과 정병훈 원장 발전후원금 전달

전북대학교병원은 14일 JB외과의원 정병훈 원장이 병원 발전을 위해 1천만원의 발전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양종철 병원장과 윤현조 기획조정실장 김소은 대의협력홍보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병훈 원장은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북대병원 외과에서 수련을 마쳤으며, 간담웨이식혈관외과 교수로 환자 진료와 연구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는 JB외과 의원 원장으로 지역 의료 발전에 힘쓰고 있다.

정 원장은 "전북대병원 외과에서의 수련 시절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우수 인재 양성과 진료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함께한 인연이 아름다운 나눔으로 이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며 "기부금은 외과 진료역량 강화와 교육 환경 개선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남원시는 14일, 춘향문화예술화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가 주관했으며, 최경식 남원시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과 내빈 및 읍면동 경로당 회장 등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신나는 예술바스' 축하공연은 밸리댄스, 국악가요, 난타 등 다채로운 무대로 큰 호응을 얻으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 어르신에게 △전북도지사 표창 1명 △남원시장 표창 6명 △남원시의회 의장 표창 1명 △지회회장 표창 7명 등으로 그간의 공로와 헌신을 인정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대, 의료복지 서



비스 확충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9회 장수 천천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제29회 천천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3일 장수군 천천면 하늘내 체육관에서 열렸다.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에게 대한 사회인식 개선 등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장수군 천천면 분회(회장 채규남)가 주최하고, 천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화영)가 주관했다. 위안공연 주관은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회장 김양욱)다.

행사에서는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회의 의장, 허기태 대한노인회 장수군지부장,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 내빈들을 포함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인사말씀, 공로감사패 수여식 등으로 구성됐다.

공로감사패 수상자로 조봉운(천천면)씨가 선정돼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함께 병행한 위안공연은 김연정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진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동동구름무, 풀바, 김종찬씨의 색소폰 연주, 문태삼씨의 아코디언 연주를 포함해, 유현순 씨의 민요, 가수 이수정·황금석·정순임·도도희·박다



남원 금동 행정복지센터 등, 사랑의 고구마 나눔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와 통장협의회(회장 박동섭)는 14일 이른 아침, 주민들이 마을 유흥사에서 정성껏 키운 탕갈탕갈하고 풍성하게 자란 고구마 400kg를 수확해 토끼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명절 인부 살림과 고구마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고구마 수확은 동, 금동 통장협의회, 발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각 직능단체와 금동 직원, 주민과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손수 땅을 흘려 수확한 고구마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경로당, 복지관 등 마을 곳곳에 전달됐다.

금동의 '우리동네 사랑나눔 텃밭가꾸기' 활동은 주민 주도형 공동체 프로젝트로, 참여 주민들은 단순한 작물 전달을 넘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인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점검하며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홀로 어르신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

남원시는 2025년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 방문과 진료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상자 가정에서 의료기관까지 왕복 이동을 지원하며, 집에서부터 병원진료, 약 수령 후 귀가까지 동행 매니저가 밀착 진료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병원 접근성을 높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여 통합돌봄 체계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문의는 통합돌봄과(063-620-6635)나 지역자활센터(010-8718-9966)로 하면 된다.

권혜정 통합돌봄과장은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장학금 300만원 기탁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14일 무주여성센터에서 (재)무주군교육발전재단에 2백만 원,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장에서 '찾집'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 중 일부로,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장학생과 위기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마경옥 회장은 "장학금은 무주반딧불축제가 개최되는 9일 동안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집을 운영했던 회원들의 수고, 찾아 주셨던 모든 분의 마음"이라며 "귀하게 모이진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원대한 꿈과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탁식에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회원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내 활력 충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단체의 역량을 보태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는 장학금 기탁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빈찬 봉사, △사랑의 쌀 전방 나눔, △어르신 돌봄, △이동·청소년 구르미 지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전주교대 91학번, 졸업 30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부

전주교육대학교 91학번 동문들이 졸업 30주년을 기념해 모교에 대학발전기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14일 전했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91학번 동문은 모교에서 받은 교육 경험과 가치를 잊지 않고 학교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한마음 한뜻으로 발전기금을 모았다.

이들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했던 교육의 삶이 큰 힘이 됐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번 기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후배를 응원하는 동문으로 남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모교를 사랑하는 졸업생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뜻이 담긴 이 기금을 우리 학교의 전통과 인연을 되새길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